

목포보성선 개통... 관광 활성화·주민 이동권 확대

전라남도는 26일 신보성역에서 목포와 보성을 잇는 목포보성선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규중 국회의원,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윤명희·최정훈·김재철·박형대·주중섭 전남도 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과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주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목포보성선은 임성리역에서 영암역·해남역·강진역·전남장흥역·장동역을 거쳐 신보성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2.5km의 단선전철이다. 총사업비 1조 6천459억 원이 투입돼 2002년 첫 삽을 뜬 지 23년 만에 완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 16분에서 약 1시간 10분대로 단축됐다. 광주를 경유하지 않고 보성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면서 남부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영암·해남·강진·장흥 등 전남 남부권 주민과 안도·진도 등 도서·내륙 지역민들도 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부산 이동이 가능해진다. 향후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전철화까지 마무리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2시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개통은 27일부터다. 개통 초기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투입되며, 평일(월~목) 왕복 8회, 주말(금·일) 왕복 10회로 운행되고, 열차운영은 목포역에서 신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신보성역에서 열린 '전남남해선 목포보성선 개통식'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개통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6일 개통식... 1조 6천459억원 투입 82.5km 단선전철

목포~보성 1시간 10분으로 단축... 평일 8회·주말 10회

성역까지 새마을호는 8천300원, 무궁화호는 5천600원으로 운영된다.

개통식에 참석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목포역에서 출발, 개통식 행사장인 신보성역까지 임시 열차를 왕복 운행

해 도민들이 정식 개통에 앞서 철도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이번 철도 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서구, 골목상권 회복에 SNS 서포터즈 앞장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 서구는 25일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인플루언서 10명으로 구성된 '서구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서구 전역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널리 알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계획 및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는 다양한 온라인 활동 경험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인플루언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상점가를 방문

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고, 먹거리·문화·상점가의 매력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이 소개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으로 주민들의 상권 방문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서구 전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점이 121곳을 대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골목상권의 가치를 공감하고 직접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소방, 추석연휴 119구급상황 관리 강화

의료상담 접수대 증설·인력 보강해 긴급상황 대비 만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19구급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하고, 의료상담 전문인력을 하루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 연휴 기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비상진료기관 안내 등 구급상황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119신고접수시스템 점검과 비상근

무 인력 사전 편성, 재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중 대형 재난과 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 발생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채택현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응급상황이나 비상진료기관 안내 등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19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공백 없는 119상황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 남구정에서 취약계층 주민의 법률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운영 중인 법률 홈닥터와 무료 법률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비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던 이들이 2가지 제도를 통해 법률 보호의 실질적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보호를 위

광주 남구, 취약계층 법률 보호 '홈닥터·상담실' 호응

무료 서비스 등 문턱 낮춰 사회적 약자 보호

해 매년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 범죄 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법률 홈닥터를 이용한 주민은 383명에 달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에 보면 법률상담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법률 문서 작성 30건과 의뢰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구조알선 14건, 법률 관련 교육 10건, 기타 상담 9건 순이었다.

법률상담 내용별로는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사·가사 관련 상담이 227건에 달해 전체 법률 상담의 71%를 차지했다. 또 형사 사건과 관련한 상담은 75건이었고, 행정과 기타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건

수도 각각 13건과 5건이었다.

법률 홈닥터 이용 방법은 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607-2242) 또는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실의 문턱도 낮고 있다.

구청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관내 거주민 또는 관내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시행,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법률 해석, 일상 관련 법률 문제까지 각종 법률 서비스를 폭넓게 무료로 제공한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 유명 가수와 DJ들을 초청,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대형 가수를 섭외하기보다, 올해 축제 주제인 '동화' 콘셉트와 추억의 가치를 살린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인기 가수 공연을 즐기기 위한 단발적 축제가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고 '추억'을 오

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무대... 충장축제 라인업 확정

동구, 개막쇼 김창완 밴드·장윤정 등 출연... 시민과 추억 공유

래 간직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

먼저 10월15일 개막의 날 개막쇼에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창완 밴드와 트로트 퀸 장윤정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마법의 성' 김광진, '아

빠의 말씀' 정여진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만난다. 이어 축제 2일 차인 16일 아시아 문화의 날에는 한·일 합동 9인조 아이들을 초청해 아시아 컬처쇼를 선보일 예정이며 3일 차 17일에는 광주교통방송 공연과 함께 DJ화나·크리스탈·사우스하

아·카주소타임 등이 불금 발광 나이트를 꾸밀 예정이다. 또한 18일 밤에 펼쳐지는 충장로드 나이트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달샤벳의 전(前) 멤버였던 DJ수빈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만난다.

임택 동구청장은 "김창완 밴드, 장윤정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부터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나이트 무대까지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신설하는 '웰에이징기술융합원(IWT)'을 통해 원천 기술 개발에 힘쓰며 웰에이징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유망 기업 유치·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 정주형 외국인 인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웰에이징 특화 인재

들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와 축적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회사 설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면 통합형 모델로 신성한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이번에도 사업이 좌절됐다.

앞서 2023년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가, 지난해에는 목포대와 광주보건대연합(초광역 유형)이 글로벌대학에 선정됐다. /기동취재부

